

V. 결 론

문화재청의 2013년 문화재 안내판 전수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문화재 안내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본 연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지금까지의 개별 안내판 하나 하나의 오류나 문제점은 무수히 제기되어 온 바 있지만, 안내판의 설명 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분석 연구는 이번이 최초의 시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안내판 각각의 특수한 문제를 찾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둘째, 모든 문화재 안내판에서 국문 해설문과 병기되는 영문 해설문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문화재 해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모범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향후의 문화재 안내 체계는 문화재 해설 안내판이 단독으로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른 매체와의 연계를 통해 안내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재 해설문이 ‘디지털 안내 체계’의 중심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안내 체계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의 해설문에 대해서는 “어렵다”,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별 안내판 하나 하나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모든 개별 안내판의 해설문이 공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원칙이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미비되어 있었던 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장에 살펴 본 안내판 체계 문제는 원칙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문화재 해설 안내판 체계는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 3종의 안내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의 안내판은 아직도 개별 문화재에 집중된 설명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공간적,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수의 문화재를 ‘문화유적지’로 묶어서 보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하는 점이다. 향후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은 안내 문안의 개선에 앞서서 다종의 문화재 안내판이 유기적, 상보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체계 개선 사업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적지 안에 존재하는 문화재 상호의 관계성을 잘 드러냄으로써 관람객이 그곳의 문화적, 역사적 장소감(Sense of Place)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 안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공간 범위에서 유관한 관계에 있는 개별 문화재를 문화유적지 개념으로 묶는,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유적지별 문화재 안내 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적지 내 안내판의 해설문도 그 체계에 따라 개선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과 기초 데이터는 이러한 성격의 후속 연구와 업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 다룬 국문, 영문 해설문의 용어 분석은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모든 안내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였다.

문화재 안내판의 해설문 가운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독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설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도중에 뜻을 알 수 없는 용어를 거듭 만나게 되면 독자는 더 이상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문화재 안내판 해설문의 집필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쓴다’고 하는 원칙만이 강조되었을 뿐 쉽게 쓰기 위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용어는 그 사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지 않았다. 본 연구팀은 문화재 해설문의 가독성을 증진시키 위해서는 장차 문화재 용어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를 위한 근거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2013년 전수조사 결과 중 국·영문 해설문을 포함하고 있는 1,860건에 대해 그 문안 속의 용어를 정보요소화 하여 기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문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문 해설문에 대해서는, 텍스트에 포함된 용어(단어 및 어구)를 ‘문화유산’, ‘인물’, ‘개념’, ‘문헌’, ‘사건’, ‘공간’ 등 6개의 정보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를 식별해 내고, 개별 요소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 규칙에 따르는 요소 식별자를 추가하는 작업 - 태깅(Tagging)을 실시하였다. 영문 해설문에 대해서도 문화재 용어로서의 의미가 있는 모든 단어 및 어구를 정보요소화 하였다. XML 전자문서화 작업 결과 국문 해설문에서는 29,121건, 영문 해설문에서는 16,320건의 용어를 분석·추출하였다. 연구팀은 이를 문화유산, 인물, 사건, 공간, 문헌, 개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그 표기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유형별 용어 표기 표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문 해설문에 대해서는 영문 용어가 국문 용어의 적정한 대역어가 아닌 것을 검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영문 해설문의 오류 유형과 사례를 보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국문 용어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번역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그 현황을 보이고, 영문 문화재 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가적으로 해설문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지식 분야별로 분류하는 주제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각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문화재 용어의 가용성, 즉 그 용어가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어인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 주제 분야 용어의 난이도와 가용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가 이러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장에서는 안내판의 해설문이 내용과 서술 방법 면에서 어떠한 보완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내판 해설문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에서 이미 대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유산 해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외국의 문화재 안내판 해설문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등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설문 작성 지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 국·영문 해설문(10개 분야 19개 문화재의 국·영문 해설문 38편)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해설문안의 보완 과제와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영문 해설문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문뿐 아니라 영문 안내문의 작성 기준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2010년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는 영문 안내 문안에 관한 지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의역 권장’ (“영어 안내 문안은 국문의 직역이 아닌 의역(발췌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만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이 유일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문화재 안내판의 영문 해설문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기존의 지침이 ‘의역’을 권장하면서도 어떻게 의역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문 작성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이를 여러 가지 사례에 반영한 예문을 만들어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영문 해설문 작성 지침을 제정하였다.

문화재 안내판의 영문 해설문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형식이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관행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 쓰여진 해설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영어권의 문자생활에서는 글의 모양과 형식에 관한 온갖 규범과 관행이 매우 상세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아야만 비로소 품격 있는 영문 제작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한 ‘문화재관련 영문제작물 표기지침(English Stylebook for Cultural Heritage)’은 문화재 안내판 및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인쇄물, 간행물, 안내 게시물 등에서 영어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향후의 문화재 안내 체계는 오프라인 안내판과 디지털 기반의 유·무선 안내 체계가 효과적으로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 하에 현재의 ‘디지털 문화재 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문화재 안내 시스템으로의 발전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전국민의 80%에 달하는 인구가 스마트폰 이용자이다. 문화유적지를 찾는 상당수의 방문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문화재 관련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래의 문화재 안내판은 물리적인 시설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가 하나로 묶인 융합적 안내 체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를 통해 그 구현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문화재 안내 시스템은 단순히 문화재 해설 문안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는 장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그 출발점으로 하되, 해당 문화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부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지식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로까지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문화재 지식 정보 네트워크’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확장된 안내 정보의 제공, 증강현실 기반의 멀티미디어 환경 구현, 정부 3.0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관 정보 융합 서비스 등의 개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추진해야 할 디지털 문화재 안내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업 수행의 결과로 산출된 분석 데이터, 사례 조사 결과, 지침의 시안, 시스템 개발 로드맵은 향후 문화재청에서 추진할 문화재 안내 체계 개선 사업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3년의 전수조사와 2014년의 전수조사 결과 분석이 일회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문화재 안내 정보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문화재 해설문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현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화재 해설문은 오프라인 안내판뿐 아니라 디지털 안내 시스템 상에서도 모든 안내 기능의 출발점이 되는 정보이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의 활용 효과를 좌우하는 토대이다. 따라서 디지털 문화재 안내 체계의 도입과 함께 향후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해설 문안은 문화재청에서 집중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정 및 등록 문화재에 대한 국문 및 영문 해설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문안 개선 및 오류 수정의 업무를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가칭) ‘문화재 해설문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제안하며, 문화재 안내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마무리한다.